

병원법당

'약손' 갈수록 부족



병원법당이 제육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체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병원내에 법당이 마련된 곳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모두 10여군데. 그러나 병원법당의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하고 병원포교에 나서는 스님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태.

법당이 있는 병원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삼성의료원, 중앙병원등의 개인병원과 국립경찰병원, 국립보훈병원, 국립재활원등 특수병원, 서울대병원, 동대경주병원등 일반병원으로 분류된다.

이중 개인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포교의 한계성과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단기치료환자가 많아 스님들의 포교를 귀찮게 여기는 환자가 많고, 그러다보

니 보시에 의존하는 재정형편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중앙병원의 경우 불공사와 철보사기, 삼성의료원의 능인선원이 관리 및 지원을 맡고 있으나 이는 자칫 법당 상주스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할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특수병원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올3월 법당을 개원한 국립재활원은 상주스님마저 없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한달에 두 번 법사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여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자나 원생을 위한 포

교활동조차 제한을 받고 있을 정도. 더욱이 이들 병원 역시 인력부족으로 포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 또 적십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국가유공자로 장기환자가 많은 국립보훈병원과 국립경찰병원 역시 7명 남짓한 법당과 적은 인력으로 환자들에 대한 포교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다.

또 타종교인이 80%이상인 점과 병원의 종교적성향 역시 단발적인 시도로는 종교적성향을 바꾸기에는 커다란 장애로 꼽히고 있다.

서울대병원등 10여곳 운영 국립재활원 상주스님도 없어

재정·관리체계·인력부족 '아름나누기' 주력 진정한 전법

일반병원의 사정은 이보다는 나은 편이나 이들 병원 역시 인력부족으로 포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 또 적십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국가유공자로 장기환자가 많은 국립보훈병원과 국립경찰병원 역시 7명 남짓한 법당과 적은 인력으로 환자들에 대한 포교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다.

이제 대해 병원법당 관계자들은 87년 법당문을 연 서울대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원법당이 1년에서 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전문성 결여 및 운영미숙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포교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병실방문과 보시행 등 외에도 다양한 포교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구조적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오히려 불교계 전반에 깔린 병원포교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정도 시행착오를 거친만큼 병원포교가 활성화되고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병원포교 협의회구성등 제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스님들의 주장이다.

병원법당 포교의 선두주자인 은진스님(서울대병원)은 "우선 병원포교에 대한 스님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병원포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보면 큰 사찰과의 연계등 재정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병원법당 상주 스님들은 종단의 일정한 지원과 병원포교에 알맞는 인력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보훈병원에서 간병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박찬희(보훈)는 '어둠 복전(福田)중에서도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라는 범망경의 예를 들며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돌보는 보살행이 이루어질 때 참다운 포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스님과 불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만화 법구경

안락의 장 즐거움을 먹으면서 살자

이항원

그 계산 다 맞춰 놔야해. 오늘 목 안해도 되는 일을 토요일에 이게 뭐야. 저가 부장이면 부장이지 이 시간까지 남 잡아 두는건 무슨 심보야. 정말이지 그자식 보기 싫어서 회사 때려 치우든지 해야지.

공대라는 왜 한마디도 없어? 화도 안나요? 나도 사람인데 왜... 원한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라도 원한에서 벗어나 살자.

무슨 수를 내서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같은 풀파가 무슨 수로...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고뇌에서 벗어나 살자.

어쩌다 당 한평 못머려 받은 개떡 같은 팔자가 됐는지 누가 비자금 좀 썰러주지 않나 거기서 썰해? 팔자 좀 보려고. 지갑 다 털었어. 그럼 나도... 참말! 이봐, 우리가 는 당하고 만 있어야해? 제길, 이런 건물 하나만 있어도 부장 꿈 안보고 살건데.

어찌든 이런 일을 하게 된 목적은 담배의 피해를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진단이 불지면 적어도 몇주일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 담배를 갑작스럽게 끊었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기분이 불쾌해지고 우울해진다. 잠을 못잔다. 자극에 아주 예민하고 쉽게 화를 낸다.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안절부절 못한다.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식욕이 증가하여 체중이 늘게 된다. 이 가운데 4가지 증상만 있어도 당신은 니코틴 금단이란 병명이 붙는다.

보전복자부는 내년 3월부터 담배갑에 앞뒤로 경고문을 써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갑에 경고문이 들어있었으나 그것으로는 흡연인구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더 강력한 경고문을 써넣기로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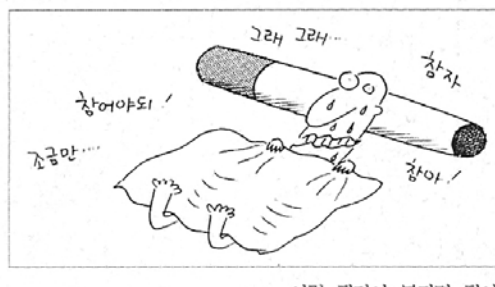
이근후 건강칼럼

<41> 흡연

나 보다. 내용을 보면 앞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글귀를 적어야 하고, 뒷면에는 4

가지 문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써넣게 하고 있다.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도 일으킵니다' 등의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게 된 목적은 담배의 피해를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을 이렇게 표현한다. "흡연자와의 키스는 재떨이를 빨는 것과 같다." 예찬론이나 혐오론이나 모두 듣기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게 들리지만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담배는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이 우리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한동안 정신과에서는 흡연자를 병적상태로



니코틴 건강 치명적 영향...심리적 의존도 문제

것은 그만큼 담배의 매력이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리스토틀레스'의 학설이 어떻게 말을 하든간에 담배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사의 정열입니다. 담배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블리에르가 했다는 예찬론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의 혐오론

진단하는 기준으로 혈중 니코틴의 양을 가지고 정한적이 있다. 그때의 니코틴 양을 환산해 보면 대개 담배 10개피 정도를 완전히 태우면 발생하는 니코틴의 양이었다. 담배는 니코틴의 양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연처럼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의존성이 문제가 된다.

담배를 끊게 되면 담배에 대한 심리적인 갈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 오늘날에 와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특히 골초들에게는 병이라고 이를 붙는 '질병단위'로서의 고유한 이름이 붙게 된다. '니코틴 관련 장애'란 큰 테두리 안에 '니코틴 의존'과 '니코틴 금단'이란 이름의 진단명이 바로 그것이다.

화제의 신간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普文品講話

법령스님 지음

건강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투병해 온 한 출가인의 수행기

고통스럽고 외롭고 잠시 즐거울 때도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가능하면서 살아온 수행인의 관세음보살의 영험과 체험을 통해 얻은 신앙의 결정체

신국판/값 8,000원

관음독송경 시리즈

1. 우리말 금강경(심재열/값 2,000원)
2.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값 2,000원)
3. 우리말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4. 한문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5. 우리말 천지पाल심주경(이정범/값 2,000원)
6. 한문 불설천지पाल심주경(이정범/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합회문(심재열/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왕경(경홍/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법보시들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영부적 대사전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값 35,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전화 : (02) 921-8434, 929-3470 팩스 : (02) 929-3470

관음출판사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大止觀坐禪法

摩訶止觀

대지관좌선법

전5권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大止觀坐禪法

摩訶止觀

대지관좌선법

전5권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